

 KAAPN 한국전문간호사협회	2021년 6월 7 일 배포	참고하여 기사 작성
	총 2쪽, 사진 : 없음	담당: 정책이사 김은미,김소연
	전화 : 01033361937 / 01072093502 주소 : 055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지하1층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PA간호사 문제 해결의 단초!!

- PA간호사에 대한 한전협의 입장 -

-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는 2018년 국정감사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현재 총 16,05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

- PA간호사는 2000년대 들어 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양산되었다. 미국의 PA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처럼 별도의 인증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양산되어 온 PA간호사는 이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임의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각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의료 현장은 PA간호사,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인력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으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상급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사들조차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최근 모국립대학병원에서는 여러 해 동안 불법성의 문제가 되어 온 PA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칭하고 별도 규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PA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면을 고려해볼 때, 의사들의 진료과 쏠림 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언젠고 다시 PA간호사의 이름만 바뀐 채 동일한 불법성의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법적 인력인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현재 PA간호사가 시행해왔던 업무 중 환자의 건강권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의료계의 합의에 의해 명시한다면, 현재 제기되는 PA간호사의 불법성의 문제와 의료 공백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반영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정부와 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전협은 불법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표명한대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